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2월 14일 (금)

...(음력 1월 17일)...

Пятница

14 февраля 2025 г.

№ 6 (1212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15일은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하는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해양구조대, 사할린 해안에 좌초된 중국 화물선 '안양2' 조사 중

2월 9일 사할린의 네웰스크 지역 해안가에 좌초된 중국 화물선 '안양2'선박을 해양구조대의 전문가들이 2월 11일(화)에 날씨가 양호한 가운데 조사에 착수했다.

화물선의 수중 부분을 잠수부들이 조사한 결과 선박의 우현에는 파손된 곳이 발견되지 않았고, 좌현 조사작업은 아직 파도가 높아서 불가능했다

선박과 수역은 드론으로 공중에서 조사했으나 수중드론은 현재 물이 탁하여 진행이 되지 않았다. 최종 정보에 따르면 사고 지역에서 선박 연료인 석유 유출은 감지되지 않았다. 이는 해수 샘플 검사로 입증됐고, 러시아소비자보호청이 매일 연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비상사태 예방에 따른 비상대책본부가 상황을 주시하

고 있다. 비상사태 예방에 따른 비상대책본부는 2021년 주 정부가 도입해 개발된 모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당시 지역은 이러한 모델 운영을 통해 유사한 사태로부터 환경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좌초된 '안양2'선박이 있는 지역에서는 긴급구조대가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해안가에는 유출되는 석유를 처리하기 위한 석유함이 배치되었으며, 비상용 자체 및 장비세트가 펼쳐져 있다.

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전투지 수색 참가로 국제 전문탐사가 조성되며, 8월 18일에는 상륙작전의 군사-역사적 재현을 진행하고, 9월 3일에는 일본군국주의로부터의 승전일로 2개의 역사적 재현이 진행되는 가운데 흡스크에서는 카미쇼브 고개에서 요새구역 습격, 스미르니흐 지역에서는 칸다스 초소 습격을 재현한다. 이때쯤 로쉬노 마을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공격작전> 박물관이 개관되며, 또한 흡수 역사적 장소에 14개의 주요 시설들이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탱크전이 벌어진 벌판, 병커, 포병진지, 군 비행장이 포함돼 있다.

(주정부 자료에서)

## 주지사, 대조국전쟁 참전자들에게 기념메달 수여

2월 11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과 미성년으로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던 분들과 노동전선 참전자들에게 기념메달 수여식이 거행됐다.

예식에서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직접 메달을 수여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조국전쟁 80주년을 맞아 기념메달을 수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파시스트의 잔혹한 포위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손주들과 증손주들이 전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여러분의 세대가 걸었던 군인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취하신 전쟁의 승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향한 여러분의 용맹스러움과 애정을 이어받은 특별군사작전 구역에 우리의 장병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친애하는 참전용사 여러분에게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참전용사인 바체슬라프 가브릴로브, 와실리 안드레예브와 후방 노동전선 참전자인 갈리나 사이폴리나, 나치수용소의 포로였던 라리사 호자코와, 알렌티나 아자렌코에게 기념메달을 수여했다. 알렌티나 아자렌코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리는 조국을 수호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해야 한

다. 그들 앞에 우리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빛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9월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승전 80주년 기념메달이 제정되었다. 이 메달은 최전방 장병, 후방 노동전선, 레닌그라드 봉쇄기시의 주민들, 포위됐던 스탈리그라드와 세바스토폴의 주민들, 나치 포로수용소의 수감자들에게 수여됐다. 메달에는 독일 국회의 사당 위에 전사가 승리의 깃발을 게양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사할린주에서도 승전 80주년을 맞아 광범위한 행사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전통적으로 <불멸의 연대>, <게오르기예브 리본>, <기억의 정원>, <승리의 창>, 행진, 주제별 연극, 전시회, 스포츠 경기

## 단신

### 유즈노사할린스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전몰장병 추념

2월 15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해외 파병 전몰장병에 대한 추념식이 거행된다. 추념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기념일을 맞아 영예 광장 비탄의 기념비 앞에서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추념식에는 참전용사와 전몰장병의 유족들과 성직자, 청년애국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의 마지막 부대가 철수했다.

이 전쟁에서 1만5천 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할린 출신 43명의 장병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체첸 등 치열한 전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 국가두마, 국민을 위해 대출 시 '자금동결기간' 법령 채택

국가두마가 러시아 국민을 사기범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채택해 대출 지급 시 '자금동결기간' 도입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국민들에게 대출을 요구하는 대출사기범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울 거라 확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은행은 5만 루블리에서 20만 루블리까지 오직 4시간 후에야 지급할 수 있고, 대출은 20만 루블리부터 2일 후에 지급되는 체계이다. 이런 식으로 자금동결기간의 길이는 대출 금액에 따라 4시간과 2일이 된다. 이 시기에 은행은 대출신청서의 사기적 요소를 검토하고, 잠재적 피해자가 정신을 가다듬을 기회를 주며, 대출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현재 은행과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모든 대출 진행체계와 사기적 방법의 자금이동을 점검해야 하고, 사기행각이 적발되면 금융운영체계와 자금이동이 취소된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연초부터 신선한 생선 147톤 이상 구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추진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에게 신선한 생선 공급' 지역 기획의 일환으로 신선한 생선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올 초부터 이러한 생선은 147.5톤이 판매되었고, 도시 전 지역 19개 매장의 35개 판매처에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선 가격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는 가운데 판매차액은 판매가의 15%가 넘지 않는다. 나와가의 경우 1kg당 75루블리에 판매되고 있다. 나와가는 3월까지 계속 공급될 전망이다. '주민에게 신선한 생선 공급'기획의 일환으로 나와가와 더불어 가자미, 송어, 대구, 명태 등 계절과 관련해 다른 종류의 생선들도 판매되고 있다.

새고려신문

##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조성용 화백, '두 천 년 경계에서' 그린 그림 소개



지난 12일(수) 오후 6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문학·미술박물관의 '소브레멘니크' 전시관에서 러시아 미술연맹 회원 조성용(러시아 이름 알렉산드르 예노비츠) 화백의 개인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두 천 년의 경계에서> 전시회는 조 화백의 65세 번째되는 생일에 열렸다. 이번에 그의 창작 활동은 45년, 사할린에서의 창작활동은 35주년이 되기도 했다.

이날 문화계, 예술계, 사회계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60-70여 명이 개막회 자리에 모인 가운데 많은 축하와 공연이 이어졌다.

"알렉산드르 예노비치는 <사할린 주 미술, 골든 펀드>라는 선집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재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미술가이고,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사람입니다."라고 표명한 사할린주 문화 고문서부 논 나 라브리크 장관은 조성용 화백의 창작을 사할린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주지사의 감사패를 조 화백에게 전달하였다.

"똑똑하고, 영감이 있고, 주변에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예노비츠는 그것을 많은 사람과 가까이 나눕니다. 조 화가는 젊은이들과 진짜 많이 소통합니다. 그는 젊은이들과 유능하게 소통하는 교

육자라서 놀랍고도 부럽습니다."라고 주최 측을 대표해 체호브 책 박물관 예브게니야 피르소와 관장이 말하였다. 그는 박물관에서 조 화백의 '흙스크 고개' 그림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도 밝혔다.

이날 러시아 미술연맹 회장의 축하문이 낭독되었고, 사할린 주미술박물관 제니스 안신 관장,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진 올리 아 부관장 대행을 비롯해 수많은 귀빈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그리고 올레그 아노힌 음악가의 피아노 연주, 사할린 필하모닉 아로슬랍나 칼라쉬니코와 가수의 무대는 무엇보다 축하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65세가 됐네요. 제 인생에 처음 제 생일에 제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시간이 두 배나 빨리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자신과 영혼에 실 틈을 주지 않고 작업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전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들에게 좀 엄격하게 했지만, 학생보다 저 자신에게는 언제나 두 배 더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창작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니 기쁩니다."라고 조성용 화백이 고백했다.

65세의 생일에 전시회에 65점 그림을 출품하고 사할린에서 창작 작업을 35년, 사할린예술전문대 교수로 30년, 러시아 미술

연맹 회원으로 35세가 되었을 때 선정 등등 인생의 주요 순간이 '5'라는 숫자가 우연찮게 상징처럼 보이기도 했다.

2층의 '소브레멘니크' 전시장에서 열린 전시회는 장르와 방향 사이의 유기적 전환을 원칙으로 구성되었다. 1층에는 다양한 기법과 예술적 접근 방식을 선보이는 그림이 많고, 2층에 있는 그림들은 관람객을 작가적 그림의 세계에 빠지게 한다. 1990년대에 그린 그림도 있고, 최근에 그린 그림이 많다. 풍경화, 초상화 등 다양한 장르의 회화들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유화를 더 선호한다.

미술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두 천 년의 경계에서' 전시회는 그의 수년간의 예술적 노력을 독특하게 반영하며, 그림, 그래픽, 설계 미술작품 등이 한 공간에 결합돼 있다.

조성용 씨의 각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시대와의 대화이며,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이다. 2년 전에 예술전문대에서 은퇴한 후 조성용 화백은 정말로 창작에 빠졌다. 다양한 전시와 기획, 경연에 참가하기도 한다. 현재 역시 그림 3작품을 동시에 그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두 천 년의 경계에서' 전시회 관람은 2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개최되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 이 모 저 모

### 특수군사작전 사할린 영웅의 딸, 아버지를 추모하여 병원에 큰 기부

스미르니흐 지역 중앙병원에 특수군사작전 참전으로 전사한 참전자의 딸이 기부한 금액으로 구매한 새로운 산소발생기 두 대가 생겼다고 사할린주 보건부가 전했다.

이 참전용사는 군사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여 그의 딸은 받은 위로금의 일부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쓰기로 했다. 그녀는 병원에 찾아가 돕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의사들과 상의한 후 치료실을 위한 산소발생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의료기기는 호흡기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된다. 이 장비는 천식과 심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므로 항상 필요한 장비다. 병원에 의료장비를 기부해 따뜻한 마음을 전한 이 여성은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았다.

"저의 아버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고, 평화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선에 참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도 나의 행위에 동의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 도chter героя СВО с Сахалина сделала щедрый дар больнице в память об отце

В Смирныхов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появились два новых кислородных concentrатора, приобретенных на средства, пожертвованные дочерью погибшего н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бойца.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ужчина героически погиб при исполнении воинского долга. Его дочь решила направить часть полученных выплат на благо жителей своего района. Она обратилась в больницу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 помощи, и посл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врачами решила приобрести кислородные concentrаторы для терапевт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Новая техника уже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лечения пациентов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дых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Эти аппараты нужны всегда, они используются при астме, сердечной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Женщина, сделавшая этот щедрый дар, пожелала остаться неизвестной.

«Папа всегда думал о людях. Он был человеком мирной

профессии. На войну ушел, считая, что не может поступить иначе. Он бы одобрил мой поступок», — поделилась она.

### 사할린에 첫 극장 예술-카페 열려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문화적 공간' 극장 예술-카페가 문을 열었다. 카페는 체호브 센터 새로운 무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공간은 연극 공연, 낭독회, 작은 형태의 연극, 기타 활동과 미술가들의 전시회장으로 쉽게 변형시킬 수 있고, 연극이 진행되는 시기에 새로운 공연장의 공간은 극장 카페-뷔페 운영방식으로 전환된다.

아트-카페는 60석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설은 유리로 된 공간으로서 예술작품 전시회 구역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를 여는 새로운 공연을 위한 주요 건물로 증축되었다.

이 건물 디자인 설계 작성에 지역 문화단체의 모든 요망사항을 고려하였고, 향후 이곳에 여름 테라스도 생겨날 전망이다.

### Первое театральное арт-кафе открыли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ое на Сахалине театральное арт-кафе "Культурное место" открыло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фе расположилось в здании Новой сцены Чехов-центра.

Пространство может легко трансформироватьс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еатральных капустников, читок, спектаклей малой формы, иных активностей, а такж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ыставок художников.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спектаклей на площади Новой сцены, площадка буде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в режиме театрального кафе-буфета.

Вместительность арт-кафе — до 6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Объект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ристройку к основному зданию Новой сцены с зоной для экспозиц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стеклянным павильоно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разнообразного формата.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дизайн-проекта учли все пожелания мест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Здесь также появится летняя терраса.

### <2025-사할린 얼음> 겨울 낚시축제 등록 시작

2월 10일(월) <2025-사할린 얼음> 축제 공식사이트에서 참가신청이 시작되어 등록 개시 10분 만에 20개팀이 등록할 수 있었다. 제14회 겨울 낚시축제는 2월 22일(토) 돌린스크 지역 나이바 강 얼음 위에서 개최된다. 낚시 애호가들은 2월 21

일(금) 19시까지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사할린 얼음 - 단순 코스모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오락 프로그램을 조성했다.

축제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적으로 빙상낚시대회, 예술단의 공연, 참가자들을 위한 다과회, 가족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 축제의 주요 주최자이자 협력자는 사할린주 수산기업연합회이고, 낚시대회의 우승 상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이다.

사할린주 수산기업연합회의 기업들이 선물을 구매하고, 자동차 주차를 위한 구역 정비, 전기 공급, 장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를 얼음 위로 운반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Стартовал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фестиваль зимне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2025»

В понедельник, 10 феврал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25» открылась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За первые 10 минут успе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20 команд. 14-й по счету фестиваль зимней рыбалки пройдет 22 февраля на льду реки Найб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гостей новый формат развлечений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просто космос». Однако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остану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одледному лову,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горячий чай с угощениями, а также семейные активности. Гла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и партнером фестиваля выступила Ассоциаци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СО). Главным призом,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танет автомобиль.

Предприятия АРСО окажут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по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подарки, расчистят территорию для парковки автомобилей, обеспечат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е, доставят на лед и перевезут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사할린에서 개별 여행비,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

아워토 서비스 정보에 따르면 고비용 여행서비스에 따라 사할린주는 전국적으로만 아니라 극동연방관구 전체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2025년 개별 여행과 개인적 낚시에서 훨씬 비용이 높은 곳은 캄차트카와 사할린, 연해주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8면에 계속)

##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전시를 열어 이기정 동료를 조용히 추념

지난 2월 12일(수) 오후 4시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특수군사작전에서 전사한 본 미술관 직원 이기정 씨를 추모하는 소규모 전시회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리며, 이날 누구도 연설하지도 않았고, 침묵 속에 가족, 친구, 동료들의 눈물이 순간적으로 엮보였다.

개막을 찾아온 사할린주문화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도 눈물을 흘리고 퇴장했다.

이기정(러시아 이름 안드레이)씨는 45세에 2023년 11월 25일 전사했다.

그는 특수군사작전이 발표된 순간부터 자원입대를 스스로 결심했다. 사실 건강상으로 입대 대상이 안 되었지만 몇 차례 거절 받다가 2022년 10월에 그의 자원 참전이 수락되었다. 외동아들로써 어머니를 친척들에게 맡기고 2013, 2015년생의 두 아들과 아내를 두고 떠났다. 너무 갑작스럽게 받은 결정이라 동료들과도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다. 누구도 그의 결심에 대해 몰랐다.

2011년에 미술박물관에서 전기기사로 일을 시작한 이기정 씨는 그 동안 아주 성실하고 창작 면에서 뛰어난 동료로 인정받았고, 주로 모든 전시회 설치를 맡았다. 책임감과 대응력이 뛰어났고, 기술적 문제 해결사로 잘 알려져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으로 다들 좋아했다.

일하면서 사할린국립대 '국가 및 지방 자치관리'학과에서 공부했다. 그는 졸업시험만 남겨두고 있었다. 여름에 휴가를 받고 기말 시험 볼 계획이었다.

그러나 끝내 사할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전시에는 그의 개인 소장품, 집과 직장에서의 사진과 드로잉 초상화, 그리고 그가 문화부와 직장에서 받은 감사장과 그의 전투 훈장, '고구려'라는 명칭을 가진 경찰대 상병에게 수여되는 4단 성 조지 십자훈장과 용기 훈장(사후 수여)을 포함한 국가 훈장은 그의 용맹과 헌신의 증거다.

이기정 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특수군사작전을 택했다... 그의 가족은 이날 전시된 사진들에서 오래오래 눈을 떼지 못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 엄마 걱정 / 기형도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1980년대 가득. 코찌질이 제 유년시절은 기억을 떠올릴수록 보석같은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 멋진 기억이 떠올라 지난 달 어머니께 말씀드렸지요. 버스로 두 정거장은 족히 걸리는 거리. 그 때는 버스비도 부담일 새라 그 정도는 무조건 걸어서 시장을 찾

곤 했거든요. ‘유진상가’라고 지금도 있으려나, 흥제동에 굉장히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보스톡과 그 시장 주변을 떠올리심 좋으실 듯. 당시 저는 은평국민학교를 다니던 초등학교생. 이제 4, 5학년 정도 됐을 테고, 기억이 선명하진 않네요. 남들보다 코를 좀 더 훌쩍거렸던 기억은 생생하긴만 켜. 종종 어머니께서 녹번동 언덕을 넘어 유진상가까지 장을 보러 가셨는데, 저는 기회만 닿으면 친구들과 놀다가도 졸졸 어머니를 따라갔었지요. 이것저것 반찬 거리들을 사시면 돌아오는 길에 순대를 얻어 먹을 수 있었거든요. 좌판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의 맛은 그 시절 일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볼품처럼 소중히 여기는 장면은 ‘김장철의 배추 잎 줍기’입니다. 김장철이라 하면 배추 거래가 활발할 테니, 배추 전에는 시장 길바닥이 온통 떨어져나간 배추 이파리들로 가득했거든요. 특히 큰 배추 트럭이 지나고 나면 그 곳에 장 보러 온 몇몇 아주머니들이 그 찢어져 땅바닥에 나뒹구는 흙 묻은 배추 잎들을 줍기 바빴습니다. 어머니도 커다란 비닐을 하나 얻어 아무지게 담으셨지요. 저도 따라서 담으려고 하면 어머니는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두셨어요. 언젠가 제가 어른으로 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화이트 컬러로 키우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니 저야 뭐 커다란 김장 비닐 봉지 입구를 크게 벌리고 서 있으면 그 뿐. 그 즈음의 제 머릿속의 8할은 만화가게, 오락실 이런 걸로 가득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 쓰레기들을 왜 담으시는 걸까’, 잠시 의문이 들긴 했어요. 그렇게 장을 보고 온 날은 꼭 황홀할 정도로 훌륭한 배춧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그 맛 난국을 먹는 거지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녁 녀 언덕 넘어 집에 오시자마자 그 흙 묻은 배추 이파리들을 씻어 요리를 만드신 겁니다. 공짜로 재료를 얻었다기보다, 그렇게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 내신 걸 생각하면 대단함을 넘어 송고해지지요. 그렇게 키우셨으니, 자식들 크게 탈 나지 않고, 잘 자란 건 아닌가, 다시 말해 잘 키우신 건 아닐까, 싶은 거지요. 부족한 살림일 지라도 그렇게 지혜를 발휘한 모성애를 생각하면 유년 시절의 추억은 어느새 따뜻한 감동으로 살아납니다. 이 얘길 들은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셔서 고맙다’입니다만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공만 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할린의 한인 분들 대다수가 사업이면 사업, 교육이면 교육 등 성공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1세대 부모님들의 희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이기도 하지요. 올해부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데 향후 추이 역시 꾸준히 살필 마음입니다. 동반가족 범위가 확대되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 것 같습니다만, 정부는 이 정도의 지원에서 멈추지 않고, 거듭 꾸준히 지원의 범위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희생으로 얼룩진 모성애, 언젠가 이 모든 걸 외면했던 정부의 못난 처세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그 후손들에게나마 ‘정’이 넘치는 배려와 의료, 주거 생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 '80년만에 고국 품으로'...사할린 동포 100명 영주귀국

동포청 · 적십자사, 9일 동해항서 환영식...올해 270명 고국 정착 예정

변철환 동포청 차장 "안정적 정착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

(동해=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 100명이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고국 품에 안겼다.

올해 영주 귀국할 사할린 동포는 이순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등 270명이다. 나머지 170명은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에 정착할 예정이다.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이날 단체입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으로 딸 에몬토투리(72)씨와 함께 고국 땅을 밟은 최군자(92) 할머니는 "조국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 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면서 "고국이 많이 발전하고 깨끗해서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최 할머니는 40여년 전 남편을 잃고 농사를 지으며 3남 2녀를 키워냈다. 둘째 아들이 10여년 전 먼저 한국에 와 부산에 정착해 살고 있어 부산에서 살 계획이라고 했다.

또 울산이 고향인 안복순(89) 할머니는 "9세 때 부모와 함께 사할린으로 건너갔는데, 부모님들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고국 땅에 묻히지 못하고 나만 오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안산 고향마을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변 차장은 환영 인사에서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사할린 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본부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 동포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년간 지원해왔다"며 "올해에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환영식이 끝난 후 동포들은 버스 5대에 나눠타고, 서울, 부산, 안산, 인천 등 새 거처를 마련한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한편,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5천340명의 사할린 동포가 영주 귀국했다.

지난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 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할 수 있다.

동포청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 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9일 휠체어를 탄 채 고국 땅을 밟은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동포청 차장이 모시며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 차장 오른쪽은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왼쪽은 최 할머니의 딸 에몬토투리 씨. 2025. 02. 09. phyeonsoo@yna.co.kr



9일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환영식에서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이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2025. 02. 09. phyeonsoo@yna.co.kr



변철환(오른쪽서 2번째) 재외동포청 차장과 박은영(맨 오른쪽) 대한적십자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동해항에서 전국 각지의 새 동지로 떠나는 사할린 동포들을 환송하고 있다. 2025. 02. 09. phyeonsoo.yna.co.kr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чтили подвиг крейсера "Варяг"

В понедельник 10 февраля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 сложившейся традиции прошли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 важными событиями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Сначала сотрудники российских загранучреждений, учащиеся школы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Ф,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очтили память русских моряков крейсера "Варяг" и канонерской лодки "Кореец", которые 9 февраля 1904 г. приняли неравный бой против японской эскадры на внешнем рейде порта Чемульпо (бывшее название г. Инчхо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на площад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Инчхона, где установлен памятник в честь подвига российских моряков. К памятнику были возложены цветы, на море спущен венок.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еуле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в которой отметил, что подвиг "Варяга" и "Корейца" "... стал частью нашей культуры, нашего культурного кода". "Вспоминая подвиг наших предков, мы вспоминаем подвиги наших соврем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отстаивают свободу, независимость, честь и достоинство нашей Родины", - добавил посол.

Особый символизм сегодняшней дате и мероприятию придавал тот факт, что все совпало с Дне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Этот крейсер прибыл сюда в том числе, чтобы охраня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миссию в Сеуле", - напомнил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Затем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должились на городском миссионерском кладбище Янхвачжин г.Сеула, где в том числе захоронены и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оживавшие в Корее в конце XIX



-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ов. Там также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Одним из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ью память почтили, является Сергей Виссарионович Чиркин, дипломат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луживший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 Сеуле в 1911-1914 годах. Иеромонах Корейской епархии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Павел совершил заупокойную литию.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Сеул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 эт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В.Зиновьев, военный,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й 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атташ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лковник Н.Н.Марченко, торгов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А.Сапетко, сотрудники российских загранучреждений, учащиеся Школы при посольстве, журналисты,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Фо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12 февра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ось «тихое» открытие небольшой выставки, посвященной И Ги Джони, сотруднику музея, погибшему на полях СВО. Не было громких речей, были тихие слезы родных, близких, коллег...

Выставка называется «И ГИ ДЖОНИ. ПОРТРЕТ СОЛДАТА». И Ги Джони погиб в ноябре 2023 г. Ему было 45 лет. Его ждали в отпуск ближе к лету, собирался сдавать выпускные экзамены в СахГУ, где учился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 муницип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ыновья Влад и Артем вспоминают об отце постоянно. Особенно 9-летний Артем, он говорит о папе каждый день...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грады, личные вещи, фотографии И Ги Джони в семье, на СВО, в музее. А также графические портреты, сделанны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выставки.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статью, подготовленную куратором выставки Хай Ок Дя, главным научным сотрудником музея.*

## И ГИ ДЖОНИ. ПОРТРЕТ СОЛДАТА

**И с травы земли родной  
вверх летит моя душа**

Свое решение уйти добровольцем принимал с момента объявл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он не должен был быть там.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отказов, но в октябре 2022 года очередное заявления приняли. Единственный сын у матери оставил ее на попече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ставил семью с подрастающими мальчишками-школярами и супругой Катериной, учёбу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не успел попрощаться с коллективом. Оставил, безусловно, в надежде, что вернется и продолжит мирную жизнь. Взвешен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связано с сыновьями. Был убежден, что вопрос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дины следует решать сейчас, чтобы не оставить проблему в наследство своим сыновьям Владу и Артёму.

С первых дней работы в музее в 2011 году сотрудники отмечали в И Ги Джони чувств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отзывчивости, внутреннюю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ь над решением каких-либо технических задач, желание постигать новое. За его плечами — монтаж сотен выставок, техническ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Юмор, фантазия, смекалк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помогали найти оригинальные решения задач проектов. Увлечение историей, любовь к музыке и книгам делали его интересным собеседником.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был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гражден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руково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а также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и Почётной грамотой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ефрейтора разведгруппы с позывным «Когурё», среди которых Георгиевский крест IV степени и Орден муже-

ства (посмертно), — свидетельство его отваги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В момент решающих для страны событий, когда встаёт вопрос долга и чести, проявляются лучшие качества человека россиянина.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совершил мужественный поступок, приняв решение уйти на СВО и встать на защит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России.

Целеустремлённый в деле и равнодушный к проблемам других людей, готовый всегда прийти на помощь. Он выручал, когда было трудно, и крайне мало отдыхал, обладал обостренным чувством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долга, был верным другом и замечательным человеком. Таким помнят Андрея и сослуживцы.

1 марта 2024 года семья и коллекти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попрощался с И Ги Джони (Андреем Николаевичем) на отпевании в соборе Воскресения Христова. Похоронили с воинскими почестями на Аллее Славы. С октября 2022 надеялись и ждали 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Не случилось...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Дё Сон Ена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члена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Дё Сон Ена открылась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СовременникЪ"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в день 65-летия автора, 12 февраля.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он отмечает также 35-летие своей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Выставка "На границе двух тысячелетий",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к важной дате в жизни художника, — своеобразное отображение его многолетнего пути в искусстве, где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объединены живопись, графика и инсталляции. На от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юбиляру вруч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Александр Енович — т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ошел в команду талантливых людей, помогавших в создании антологии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олотой фонд!" "Вы наш художник, вы наш наставник, вы наш педагог, вы — наш, — зачитала поздравление от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 Есть люди яркие, вдохновленные, аккумулирующие вокруг себя творческую энергию. Но Александр Енович еще и щедро делится ею со всеми. Он потрясающий педагог, который так грамотно общается с молодежью, что остается лишь позавидовать, — 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Она также сообщила, что музей приобретает в фонды картину Дё Сон Ена "Холмский перевал".

Как отмечают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кажд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Дё Сон Ена — это не просто визуальные образы, а диалог с эпохой, размышления о человеке и жизни. И этот процесс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сих пор — автор находится в постоянном поиске.

— Не успел оглянуться — а уже 65. И первый раз на м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открывается выстав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выставку работ члена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Дё Сон Ена.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огромное за это спасибо. Посл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рубежа в возрасте время бежит будто в два раза быстрее, и хочется постоянно работать, не давая покоя себе и своей душе. Когда я преподавал студентам, я с каждого спрашивал строго, но к себе я всегда относился еще строже. И я рад, что мое творчество способно вдохновлять, — признался Дё Сон Ен.

Экспозици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СовременникЪ" выстроена по принципу органичного перехода между жанрами 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Первый этаж представляет разнообразие техник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одходов, а второй этаж погружает зрителя в живописный мир автора. В день юбилея твор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объединило всех, кто неравнодушен к искусству. Так, своим музыкальным мастерством зрителей поразовали российский пианист, композитор и аранжировщик Олег Анохин и солистка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Ярославна Калашникова.

Поздравление с юбилеем от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Андрея Ковальчука зачитал заслуженный художник РФ Владимир Чеботарёв. Поздравления для юбиляра прозвучали также от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Дениса Яньши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и других.

Экскурсии по выставк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регулярно, с 13 февраля "На границе двух тысячелетий" может побывать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31 марта.

## Начал работу телеграм-канал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м Ден Хван) открыла св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телеграм-канал, который будет знакомить читателей «с историей корейцев, особенностями их жизни, мировоззрения и быта, праздников, ритуалов, кухни, искусства и всех смыслов, заложенных в многогранной и интерес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Так как с каналом уже начал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едущие сотрудники науч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и.о. зам.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

ского музея), этнограф Ким Ен Хи,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то можно ожидать качественного наполнения канала.

Уже анонсированы рубрики и темы публикаций.

Канал также предложи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 которое был дан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На день сдачи газеты в печать на канале уже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посты о начал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о Празднике полной луны и др.

Подписать на канал можно по ссылке

<https://t.me/koreanssakhalin/>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Лидер Демпартии Тобуро призывает приня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Лидер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гото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в размере не менее 30 трлн вон (20,5 млрд долларов) для ожи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должно упустить золотое врем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посредством денежной экспансии», - заявил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10 феврал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может быть направлен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на фоне политических потрясений, вызванных объявление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Ли Чжэ Мё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ключевые отрасли, такие как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биотехнологии, оборона, энергетика и машиностроение. Поскольку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дал понять, что он может возобнов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он Ыном,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хеньяном.

##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обдумывает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АТЭС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может посетить РК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для участия в саммит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О том, что он обдумывает своё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китайский лидер сообщил спикер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У Вон Сику, встретившись с ним 7 февраля в Харбине. Саммит АТЭС состоится в Кё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 начале ноября.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встретился со спикер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впервые с 2014 года.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сохране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ях Сеула и Пекина, отметив, что устойчивые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способствуют миру в регионе. «Китай и РК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вместе, чтобы укрепи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в условиях возросшей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и во всем мире», - отметил Си Цзиньпин.

## В 2024 году ЮНИСЕФ доставил в КНДР 7,1 млн доз вакцин

Детский фонд ООН (ЮНИСЕФ) достави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7 млн 100 тыс. доз вакцин. Доставка имела место, несмотря на задержки с возвращением в страну после пандемии сотруднико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агентств. ЮНИСЕФ в своём отчёте назвал поставку вакцин самым важным достижением 2024 года, не уточнив типы вакцин. 8.500 новорождённых были вакцинированы от гепатита В, и более 600 тысяч дете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лучили регулярную вакцинацию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иваемой ЮНИСЕФ. Более 17 тысяч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были охваче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ой обеспечения питанием, а 26 тысяч детей – программам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санитарии.

## Пак Юн Чжэ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Приза Лозанны-2025»

16-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танцор Пак Юн Чжэ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Приз Лозанны» 2025 года, финал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ся 8 февраля в театре Болье. Танцор-мужчина из РК впервые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данного конкурса. Ранее награду получали дв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балерины - Кан Су Чжин в 1985 году и Пак Сэ Ын в 2007 году. «Приз Лозанны» - один из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артистов балета. Он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начиная с 1973 года.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танцоры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18 лет. Лауреаты в качестве преми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получают стипендию на обучение в школе-партнёре или стажировку в труппе-партнёре конкурса.

## У РК 6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по шорт-треку на зимних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По итогам трёх дней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IX зимних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в Харбин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борная достигла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завоевав 11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Шорт-трекистка Чхве Мин Чжон стала трёхкратной золотой медалистой соревнований, выиграв в забегах на 500 и 1.000 метров среди женщин, а также в смешанной эстафете на 2.000 метров. До неё никто из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не завоевывал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Чан Сон У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двух медалей высшей пробы – в эстафете и забеге на 1.000 метров среди мужчин.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шесть из возможных девяти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по шорт-треку.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также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конькобежному спорту. Золотые медали у Ким Мин Сон в женском забеге на 500 метров и в женском командном спринте. С одиннадцатью золотыми, девятью серебряными и семью бронзовыми медалями РК занимает второе место в медальной таблице, уступая Китаю.

.....RKI.....

## Ко дн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 Россиян встречают с улыбками. Посол РФ в КНДР рассказал, как живет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ней достигли уровн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алоизвестна россиянам. Накануне Дн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побеседовала с послом РФ в Пхеньяне Александром Мацегорой. В эксклюзивном интервью он рассказал о проектах,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 наши страны,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к россиянам, особенностях жизни в КНДР.

**Как бы вы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и в целом текущий уровен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акие ключевые достижения и вызовы вы могли бы отметить?**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НДР достигли уровня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Юридически они основаны на подписанном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овом базовом договоре. Именно его я бы и назвал главным достижением не только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но и, пожалуй, всего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С заключением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связан и ключевой вызов, который стоит перед нами - все, что в нем записано, все, что согласовано лидерами, необходимо претворить в практическую реальность. А это непрост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оссийская и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ы со всей искренностью и энтузиазмом работают над решением данной задачи.

Оба наших руководителя в официальных заявлениях и в переписке между собой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черкивали непреложный факт того, что такой, как сейчас, уровен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вечает интересам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КНДР. Сокровенное желание и каждого россиянина, и каждого корейца - это мир,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для его семьи и 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Достижение этой цели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4-й статьей договора, где закреплено обоюдное обязательство прийти на помощь друг другу в случае внешней агрессии. Отсюда следует, что мы с КНДР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имся в союзных отношениях. Кто посмеет покуситься на такой союз? Наш союз равноправен и взаимовыгоден, а потому крепок и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длитель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Москва и Пхеньян никому не угрожают, но и в обиду ни себя, ни своего союзника не дадут!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наблюда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контактов. В каких сфер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НДР развивается наиболее динамично? Какие проекты уже реализуются, какие новые инициативы могут быть запущены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Цель каждого из прорабатываемых нами на двусторонней основе проектов заключается в решен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адач и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 в повышении материального уровня, улучшении условий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и КНДР. Начнем с того, ч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любой сфере требует знания языка страны-партнера. В КНДР сейчас очень заметно вырос интерес к изучению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ы смогли восстановить после ковидного перерыва работу Русского центра в Пхенья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идет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Центра открыт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столичн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институте имени Ким Чхоль Чжу. Совместно работаем над тем, чтобы в одной из пхеньянских школ открыть классы с обучением всех предметов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ам в этом активно помогают Фонд "Русский мир",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Институ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мени А. С. Пушкина. Отдельно отметил бы Благовеще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который предложил корейским друзьям свою программу.

Одновременно активизируем усилия по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наших вузах. В Москву, Казань, Новосибирск и Владивосток на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из Пхеньяна поедут профессор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не только учить студентов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о и проводить метод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с наши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К моей большой радости возобновились краткосрочные (три месяца) летние стажировки студентов МГИМО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им. Ким Ир Сена. В сентяб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трое ребят приедут сюда на полный курс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ие друзья уже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них замечательн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и учебы.

Из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де мы добиваемся значи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я бы выделил медицину,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подготовку и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кадров, туризм. Весьма удовлетворены возобновлением регуляр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бьет рекорды. Хоро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добилось возобновившееся, наконец, после пандемии свою работу совмес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РасонКонтранс" - за прошлый год через порт Раджин направлением на Китай им перегружено свыше 600 тыс. тонн российского угля.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сширение связей в области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и -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КНДР появилось много российских продуктов, товаров широк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 овощные и мясные консервы, конфеты, печенье, колбаса, сыр, мука, сахар. В аптеках много наших лекарств. Прорабатываются вопросы поставок к нам корейского ассортимента, который, уверен, заинтересует российского покупателя.



Посол РФ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осольством

**Как, на ваш взгляд, жители КНДР воспринимают Россию и россиян? Есть ли заметные сдвиги в культурных,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ях между нашими народами?**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Корейцы всегда очень по-доброму, по-дружески относились к россиянам. Это предопределено не только общей историей, наполненной примерами тес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взаимопомощи. Обоюдная симпатия проистекает из особенност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характеров - нам нравится в корейцах их огромное трудолюбие,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сть, национальная гордость и преданность родине. Корейце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ивлекает в нас открытость, широта души, щедрость, преданность друзьям, простота в общени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такое теплое отношение к россиянам здесь стало еще более заметным. Где мы ни бываем, везде нас встречают с улыбкой, пытаются по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предлагают свою помощь. Наглядный пример такого братского отношения - реабилитация сотен раненых бойцов СВО в корейских санаториях и лечебницах. Лет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амый лучший в КНДР центр детского отдыха Сондовон на берегу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принимал ребят, чьи отцы героически погибли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Причем лечение, уход, питание - все, что связано с пребыванием в КНДР - все это было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о. А когда мы предложили друзьям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хотя бы часть их расходов, они искренне обиделись, просили больше никогда этого не делать.

**Как функционирует россий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в условиях КНДР? Расширяется 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миссия, увеличилось ли число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в Пхеньяне с учетом актив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Мы пока еще только приближаемся к "доковидному" кадровому составу посольства. В феврале-марте заедут еще два выпускник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дипломат будет, наконец, заполнен полностью. Кстати, работать сюда приезжает почти только одна молодежь, для которой Пхеньян - это первая заграникомандировка. Много девушек - их у нас целых четыре. Пополнение, прямо скажем, неопытное, но по-хорошему очень амбициозное, старательное, нацеленное на то, чтобы полностью и в самые сжатые сроки овладеть профессией. Работы заметно прибавилось - одних делегаций м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тправили в Россию и приняли здесь свыше восьмидесяти. В ежедневном формате идут контакты с корейским МИД и друг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Только с курирующим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у меня в 2024 году было свыше пятидесяти бесед.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с корей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работа идет душа в душу. Не было ни одной проблемы, которую бы мы не смогли успешно решить. Так будет и дальше, абсолютно уверен.

**Как проходит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дипломатов и их семей в КНДР? Где отдыхают, куда ходят/ездят на выходные, на праздники? Достаточно ли в Пхеньяне мест для досуга иностранцев?**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Огром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работы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мы не страдаем от автомобильных пробок, не проводим в них часы и дни, как это бывает, скажем, в Москве. Машин здесь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конечно, стало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но не настолько, чтобы возникали заторы. Например, до аэропорта мы спокойным ходом добираемся за 25-30 минут. После работы и в выходные/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многие ходят гулять на набережную Тэдонгана или в парк Моранбон. Чуть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потребуется, чтобы попасть на живописную гору Рёнаксан в пригороде столицы. Устраиваем коллективные поездки на дальние расстояния. Так, на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большая группа наших сотрудников с семьями посетила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Масикрён. До этого организовали экскурсию в пещеру "Рёнмун Тэгуль" в предгорьях Мёхянсана примерно в 100 км от Пхеньяна - потрясающее по красоте место.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Ко дн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 Несмотря на санкции, русофоб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т. Посол РФ в Сеуле оценил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Ф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ереживают непростые времена, но, в отличие от Запада, местное общество не заражено русофобией.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Южной Корее, что это за страна, рассказал в эксклюзивном интервью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посол РФ в Сеуле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для Вас ушедший 2024 год стал "годом Кореи". Вы прибыли в Сеул и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самых первых числах янва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Вы китаист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долго жили в Китае. Каковы Ваши впечатления о Корее, о ее народе?**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 образованию я востоковед, занимаюсь Восточной Азией - регионом, где люди едят палочками и пишут иероглифами (или писали раньше, как это справедливо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ровел здесь порядка 20 лет, из которых 19 жил и работал в Китае и один год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печатление от Кореи и ее народа у меня самые благоприятные. Еще до моего назначения сюда я знал, что это красивая страна с богатой культурой, интересной историей, населенная трудолюбивыми и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ми людьми. М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РК только подтвердило эт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тметил бы такую черту корейцев, как умеренный перфекционизм - они стремятся к совершенству результатов своей работы, но не делают из этого культа.

Неизбежно сравниваю Китай и Корею, с интересом нахожу общие моменты в культуре двух стран, в языке - ведь в корейском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лексически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з китайского. Вместе с тем, Корея безусловно обладает самобытной богатой культурой, и мне любопытно 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зличными ее аспектами. Если сравнить опыт пребывания в Китае и в Корее с проживанием в гостинице, то Китай - это как бы огромный пятизвездочный отель, а Корея - уютный бутиковый отель.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весьма интересно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Естественно, существует и много особенностей. Так, весьма различны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работе применяются другие алгоритмы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Заметно отличается и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Если в Китае я всю сво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блюдал поступате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связей, то наше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ейчас, к сожалению, по известному комплексу причин переживает заметный спад и оставляет желать много лучшего.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это временное явление.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Южная Корея ворвалась в заголовки мировых СМИ - введени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мпичмент президенту, суд над ним. Рас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чего ждать в дальнейшем? И как возмож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еремены могут отразиться на отношениях с Россией?**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заголовки, которыми пестрят мировые СМИ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чиная с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кладывается весьма драматизирова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текущем состоянии дел в стране. Вместе с тем, обычная жизнь идет своим чередом. У РК весьма бур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современная история, и происходящее довольно органично в нее вписывается.

Конечно, я не собираюсь высказывать какие-либо оценочные комментарии и давать поводы к обвинению меня в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Безусловно, корейцы без посторонней помощи разберутся со своими проблемами. При этом очевидно, что происходящи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политические катаклизмы - это, скорее, правило, чем исключение. Протицирую мнение местных экспертных кругов о том, что это связано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страны. РК - президент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где на выборах действует принцип "победитель получает все". За власть борются две глав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которые зачастую непримиримо настроены в отношении друг друга, что существенно затрудняет поиск компромиссов. Кстати, если мы оглянемся на историю государства Чосон, то для него политические драмы были не редкостью. Партии ученых при дворе вели ожесточенные диску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толкования различных положений конфуцианских ритуалов, и участь побежденных была незавидной.

Возвращаясь к дню сегодняшнему, напомним, что сейчас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 суде идет рассмотрение вопрос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импичмента президенту, который был вынесен парламентом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Если импичмент будет утвержден, то в течение 60 дней должны состояться выборы. За пос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будут опять же бороть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основ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Не комментируя текущие процессы,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эксперты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на два достаточно необыч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Это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теорий заговор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выборы в парламент, когда победила оппозиция, были сфальсифицированы оппонентами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Как он сам утверждает, его противники связаны с внешними силами.



Посол РФ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осольством РФ в Сеуле

Внимание также привлекли сообщения,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некоторые воен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РК хотели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КНДР на жесткие меры реагирован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 этим предлогом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е планы по введению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а на эту тему еще не закончены, но в СМИ уже всплыло немало информации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Есл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то, конечно, это не может не вызывать озабоченности в контексте сохранения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то касается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думать, что наши связи могут сохраниться 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восстановитьс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то находится у власт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прошлые годы Россия сотрудничала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администрациям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ми различ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и у нас нет каких-то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предпочтений. Главное, чтобы партнер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ыли готовы к взаимовыгодной работе с нашей страной.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немало здравомыслящих политиков в РК отдают себе отчет в важности поддержания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нынешнее состоян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ухудшались после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феврале 2022 года. Эта тенденция набрала обороты и за тот год, как я здесь работаю. Однако хотел бы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основа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сохраняе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олитически подерживая Запад в вопросах, связанных с СВО, тем не менее, не осуществляет поставок леталь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на Украину, что привело бы к необратим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дл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вязей. Надеюсь, что отношения не будут ухудшаться дальше и в будущем вернутся на траекторию пози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Как говорится, самое темное время - перед рассветом.

Хотел бы также добавить, чт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мы не сталкиваемся с такими явлениями, как русофобия или проявление не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и к нашей стране. В целом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сохраняется благожелательный и позитивный подход к России, это выгод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того, что можно наблюдать в большинстве стран Запада.

**Наверное,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тенциально деструктивных вопросов дл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я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ямых поставок оружия и боеприпасов Южной Кореей Украине. Каков сейчас официальный подход Южной Кореи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Как я уже упомянул, начало таких поставок означало бы пересечение нашей "красной линии" и подрыв основы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Мы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онечно, по-разному смотрим на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миров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Украинский кризис - это одна из тех тем, где наши подходы диаметральн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 Сеул оказывает заметную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киевскому режиму, поставяет ему некоторую нелетальную во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полностью поддерживает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рративы Запада в том, что касается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Мы помним, что летом 2023 года, посетив саммит НАТО,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с супругой прибыли в Киев. Там их отвезли в город Буча, название которого стало нарицательным,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м дез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кампанию Украины против России.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не постеснялась привез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в этот город в попытке за сче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крепить свои насквозь лживые, как уже всем более-менее очевидно, нарративы.

Как российская стра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а, если бы южнокорейское летальное вооружение попало на Украину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было бы применено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их солдат и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мы знаем, что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на системной основе осуществляет не-

избирательные обстрелы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и сел, что ведет к значительным потерям среди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это не могло бы не сказаться самым негативным образом на наш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ях с РК. Здесь хорошо знают о нашей позиции, внимательно восприняли слов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дупреждавшего о нежелательности такого рода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 в том числ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нтересов сам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смотря на некоторые заявления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о намерении пересмотреть свои подходы в том, что касается поставок леталь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на Украину, этого не произошло и, надеюсь, не произойдет. РК остается верной своей пози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ой она не поставяет летальное оружие в зону конфликтов, чт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и на украинский кризис. Хотел бы также добавить, что такого рода идеи не пользуются широкой поддержкой н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и среди политической эли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ово отношение в РК к укреплен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Ф и КНДР?**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Эта тема вызывает здесь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Как известно, Россия, начав решительно отстаива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олкнулась с огромным давлением западного антироссий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а", который пытается нанести е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руками Украины. КНДР с первого дн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лностью поддержала действ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то создало мощный стимул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ы развивали наши отношения с эти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соседом, соблюдая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и не нацеливая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отив третьих стран. Если кто-то полагал, что мы не будем так делать, то это было бы, на мой взгляд, достаточно наивно. По понятным причинам реакция местны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на подобные процессы максимально негативная, о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озвучивалась и продолжает озвучиваться с различ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рибун, в том числе самых высоких. Нас обвиняют в нарушении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требую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екратить "незако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НДР.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роцессы приобрели здесь особо мощную динамику. В качестве небольшой, но наглядной иллюстрации такого рода настроений могу вспомнить о том, что в ходе выступлени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о Тхэ Ёл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РК парламентарии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задали ему вопрос, почему отсюда до сих пор не выслали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ла. На это министр ответил, что все опции на столе.

Вместе с тем на фоне выборов в США, а также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данный сюжет перестал быть объектом такого приста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СМИ, как это было раньше. Эксперты же высказывают различные точки зрения. Есть те,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немедленно начать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на Украину. Есть те, которые призывают к осторожности и напоминают, что Россия была, есть и будет сосе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которым надо выстраива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не допускать их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обрушения. Что касается рядовых граждан, я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их эта тема, подогревавшаяся ежедневными вбросами материалов, в основном со ссылкой на лживые украинские источники, может быть, одно время и интересовала, однако сейчас ажиотаж поутих. Обычными корейцами украинские события не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нечто, затрагивающее их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старания убедить их в обратном.

**Присоединение Сеула к антироссийским санкциям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е их ужесточение нанесло удар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Что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ит в сфер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Ф и РК?**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Сеул был одним из наших приоритетных партнеров не только в регионе, но и в мире в целом. До 2022 года товарооборот достигал 30 млрд долларов США, 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операция велась по самому широкому спектру направлений, включая в свое время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сфере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 том числе в космиче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смонавт Ли Со Ён прошла подготовку в России и отправилась на МКС вместе с россий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на российском ракетополетеле. Мы оказали существенную помощь развитию 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роме того,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огром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носившие обоюдовыгодный характер.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можно было назвать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судостроения. Все это мы потерял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Конечно, что-то сохранилось. Так,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их таможенных органов, товарооборот в 2024 году сократился еще почти на четверть, составив 11,5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 не худшие возможные показатели, особенно с учетом всех сложностей,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ась наша двусторонняя кооперация, однако сегодня нам приходится говорить о совсем другом уровне и качестве практ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чем раньше.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통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 굳건한 재외동포정책 체계 확립

## 새시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확대

## 따뜻한 동포 맞춤형 보호·지원

## 상생의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 편리한 동포생활 구현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2월 11일(화)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통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K-컬처 등 한류가 지구촌에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동포사회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동포청 설립의 취지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핵심 5대 과제로서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편리한 동포생활을 제시했다.

### 1.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재외동포정책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동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내동포 정착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명칭·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격년으로 제작하는 「2025 재외동포현황」을 발간하여, 향후 정책과 사업의 기반을 확립한다.

한편, 현지 동포사회와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지역별·분야별 동포사회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세미나도 활성화한다.

### 2. 동포사회 세대교체 추세에 맞춰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전 세계 1,400여 곳의 한글학교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스터디코리아) 기능 개선 및 콘텐츠 확대 등 재외동포 교육을 강화한다.

\* 한글학교 운영 지원 예산 : (‘23년) 141억원→(‘25년) 186억원 (+45억원, 32%↑)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에 기여할 우수 인재 육성 차원에서,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를 확대\*하고, 초청 장학사업의 사후관리 내실화 등 운영 체계를 개선한다.

\* 재외동포 모국 초청연수 참가자 : (‘24년) 2,100명 → (‘25년) 2,600명 (+500명, 23%↑)

아울러, 차세대 동포로 구성된 「글로벌 차세대동포 위원회」(가칭)을 신규로 구성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논의하고, 세대교체에 따른 동포사회 변화에도 적극 부응한다.

재외동포 청년(만 20~34세)의 재외공관에서의 인턴십(6개월) 활동을 지원하여 국정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도 계속된다.

### 3.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동포

### 보호·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동포분들이 거주국에서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북수국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병역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2025년 세계한인입양대회 개최와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 신설 등 입양동포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국내외 취약동포에 대해서는 따듯하게 보듬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할린동포가 자녀와 이산가족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사할린동포법」에 따라 모든 자녀 및 그 배우자와 동반하여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할린동포 대상 법률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사할린동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정착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더욱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2007년 이후 중단된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그 밖에도, △해외위난 동포사회 지원 확대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 자녀 지원 △국내 피난 동포의 체류 지원 등과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세심하게 살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포청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 동포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올해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종합적·실질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소년·성인·고령층 등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관련 활동도 지원해 나간다.

이와 동시에, 북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하여 재외동포의 모국기여를 널리 알린다.

### 4.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대한민국의 교류 :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2025년 세계한인회장대회(10월)를 개최하여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계한인차세대대회(5월)를 개최하여 차세대동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 및 아르헨티나·파라과이 한인 이주 60주년 등 역사적 기념 사업 등 재외동포사회의 맞춤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무엇보다,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4월 「2025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하여 국내 기업 및 동포 경제인의 비즈니스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을 통한 국내 경제인과 재외동포 경제인을 연계하고, 온라인 플랫폼(「한상넷」)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자문 및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재외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는 등 한상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촉진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더불어, 전 세계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가칭 ‘재외동포TV’)을 구축·운영한다.

### 5. 올해에는 더 편리해진 재외동포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11월 시범실시에 이어, 최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확인 후, 전자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원 확인은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 중 하나로서, 인증센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화상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상에서 아포스티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통해 동포청 민원 서비스를 인천공항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등록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재외국민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도 적극 전개한다.

끝으로, 재외동포청은 2025년도 중점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① (국내동포) 국내에 거주·체류 중인 동포들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사할린동포) 사할린동포는 모든 자녀와 함께 영주귀국하여 이산의 아픔 없이 국내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다.

③ (국내기업)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동포 경제인 연계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에 자신감을 갖고, 폭넓은 수출 기회를 얻는다.

④ (해외거주 동포) 한국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국내 전자정부, 금융, 교육, 쇼핑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⑤ (모든동포)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가칭 ‘재외동포TV’)을 통해 24시간 대한민국의 소식과 재외동포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 "내국인 인식개선 위해 재외동포 독립운동사 편찬·교육해야" 댓글

인천대, 정책 이슈 포럼서 '재외동포 이해와 상생방안' 모색



10일 오후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재외동포 이해와 정책 이슈 포럼에서 이상덕(앞줄 왼쪽서 6번째) 재외동포청장과 박종태(7번째) 인천대 총장 등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 2. 10. phyeonsoo@yna.co.kr

(인천=연합뉴스) 강성철 박현수 기자 = 국립인천대(총장 박종태)가 주최한 재외동포 정책 이슈포럼에서 내국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독립운동을 편찬해 이해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는 10일 오후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재외동포 이해와 상생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재외동포 공동체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면서 국내 동포단체를 대상으로 리더십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포에 대한 이해와 상생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에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제안도 했다.

포럼에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과 동포청 관계자,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학계 인사 및 국내 재외동포 관련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상덕 청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대가 재외동포 사회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동포사회 성장에 따라 모국에서 재외동포학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기에 동포사회와 모국이 대응하게 상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로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올해 주요 업무로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에 기여하는 동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돈 인천대 대외협력부총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이기성 동포청 정책국장, 이민호 일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 국장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광주·안산·제천시 등 지자체와 처음으로 국내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호 지사장은 "독립유공자 서훈 미전수자가 전체 독립유공자 중 40%인 7천285명에 달하는데 국가보훈부에 관련 인력은 1명뿐"이라며 "재외동포청과 협업 프로젝트로 바꾸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도 "멕시코·쿠바 지역의 독립유공자 후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훈을 전수하는 일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주고 한민족 후손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아위토 서비스에 따르면 개별 여행이 실제로 이번 시즌에 전례 없이 인기를 누린 가운데 지난 2개월간 66% 예약이 증가했다. 게다가 캄차트카 여행가이드는 1만 루블리라는 가장 비싼 금액을 요구했다. 사할린주는 가이드를 동반한 개별 단거리 하이킹의 가격이 7천 루블리로 이 부문에서 상위 2위를 차지했다.

단체 여행은 비용 면에서 개별 여행에 뒤를 이었고, 캄차트카와 사할린의 단체별 여행비용은 캄차트카 7천500루블리, 사할린이 5천 루블리로 기록돼 다시 국내 기록을 경신했다. 칼리닌그라드주는 여행비용에 가장 적은 비용을 요구했다. 비교해보면 이들 여행비용은 개별 또는 단체 예약에 관계없이 총1,500루블리로 예약되었다.

2025년 1월에 러시아 국민이 1년 전보다 2.5배 더 자주 낚시를 즐긴 것을 보면 고비용은 낚시여행을 막지 못했다. 겨울철 낚시여행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스웨르드롭스크주와 크렘반도로 1천 루블리 -2천 루블리에 해당됐다.

겨울철 낚시여행으로 여행객들에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곳은 캄차트카 변경과 연해주로 가이드 동반 및 서비스로 캄차트카가 1만3천 루블리, 연해주가 1만 루블리의 비용이 청구되었다.

### Сахалинские цены на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одни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По данным сервиса Ави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 дороговизне туристических услуг заняла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в стране, равно как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в целом. Зимой 2024–2025 гг. наиболее высокая стоимость на частные экскурсии и любительскую рыбалку зафиксированы на Камчатке, Сахалине и в Приморье.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как сообщает Авито, в принципе в сезоне пользовались небывал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заказы приросли за истекшие два месяца сразу на 66%. Притом самое больш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 10 тысяч рублей — просили гиды Камчатки. 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части стоимост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коротких прогулок с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 с 7 тысячами рублей — заняла вторую строчку этого топа.

Групповые экскурсии потянулись вслед за индивидуальными по цене, и здесь Камчатка и Сахалин снова побили рекорды страны с фиксированной стоимостью 7,5 и 5 тысяч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Меньше всего за экскурсии просили гиды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сравнения — их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составило всего 1,5 тысячи рублей, причем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тур заказывали или групповой.

Также в январе 2025 года россияне в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раза чаще рыбачили, чем год назад. И ценник их не останавливал. Дешевле всего можно было поудить рыбу зимой в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ли в Крыму — 1 тысяча и 2 тысячи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ороже всего зимний улов обошелся туристам, прибывшим на Камчатку или в Приморье — за сопровождение и услугу им выставили «счета» на 13 и 10 тысяч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 с а х а л и н 주 민, 러 시 아 팀 규 모 에서 선 두 차 지

사할린주는 가장 높은 팀으로 러시아 지역 순위에서 최선두를 차지했다.

'네트모네트(팁)'사업을 위해 국내 통계를 연구한 디지털 서비스 분석가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놓았다. 연구분석에 따르면 사할린주에 평균 팀 규모는 551루블리로 이는 상위 10위에 오른 다른 지역들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다. 2위로는 알타이공화국으로 평균 514루블리이며, 3위에 마가단주가 올라 이곳을 팀으로 평균 470루블리를 남겨둔다.

모스크바시는 예상과는 달리 순위에서 4위에 머물러 평균 팀의 규모는 443루블리였고, 모스크바주는 모스크바시와는 달리 상당히 뒤쳐져 15위를 차지하여 평균 팀의 규모는 20%

가 낮은 366루블리에 해당되는 것이 눈에 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상위 10위에도 들지 못하고, 24위에 머물러 평균 팀의 규모는 342루블리였다. 레닌그라드주는 팀이 이보다 낮은 293루블리로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 14% 낮아 54위에 머물렀다.

전 러시아에서 '네모네트'보고에 따라 가장 높은 팀을 주는 것과 반대로 가장 낮은 팀을 주는 지역은 우드무르트 공화국이 212루블리, 인구셰티야가 230루블리, 하카스 공화국이 238루블리에 해당됐다.

###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стали лидерами по размеру чаевых 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зглавила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 самыми высокими чаевыми. К такому выводу пришли аналитики цифрового сервиса для бизнеса «нетмонет», изучив статистику по стране.

Согласно исследованию, средний размер чаевых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авляет 551 рубль. Это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ьше, чем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попавших в топ-10.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расположилась Республика Алтай со средним показателем в 514 рублей. Замыкает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где «на чай» оставляют в среднем 470 рублей.

Москва, вопреки ожиданиям, оказалась лишь на четвертом месте рейтинга. Средний размер чаевых в столице составляет 443 рубля.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значительно отстает от Москвы, занимая 15-е место с показателем в 366 рублей (на 20% меньш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 вовсе не попал в десятку лидеров. Северная столица заняла лишь 24-е место со средним размером чаевых в 342 рубля. В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еще ниже — 293 рубля (54-е место, на 14% меньше, чем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Топ-1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 самыми высокими чаевыми по версии «нетмонет»:

Антилидерами рейтинга стали Удмурт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212 рублей), Республика Ингушетия (230 рублей) и Республика Хакасия (238 рублей).

(с а х а л и н 주 언론 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sup>2</sup>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РАССРОЧК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 а з а н г (주필) 배 워 토 리 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